

名士기 권이는 인권의 책



『더불어 숲』은 희망과 축복의 책!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들어내고 사람을 키워내는 진정한 성(城)을 남기는 권고하고 있다. 이미 인간적 가치가 위협 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중을 올리는 것 같아 마음에 참 씁쓸해진다. 인간적 가치를 키우고 지켜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봐도 그 해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모든 존재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의미와 상징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세계를 돌며 인류 역사와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보았지만, 나는 그냥 안내판의 설명만 대충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느껴지기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작가가처럼 세계 기행을 해 보고 싶었다. 혼자서 말이다.

여행은 떠남과 만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작가의 말에 더욱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비록 가족을 떠나고 한국을 떠날 테지만, 그 대신 세계를 돌며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나 스스로 느껴볼 수 있을 테니 그것이 만남이 아니겠는가.

현대로 올수록 제각기 더욱 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존과 평화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인간부터 달라져야 한다. 반쪽과 불신에서 벗어나 겸손의 자세로 다른 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역사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신영복 지음 / 중앙M&B)

“백운산 고로쇠 수액 맛 보세요”

이동면 도평리 주민 수액 채취 주문 판매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 백운산 고로쇠 수액 맛 보세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은 고로쇠 작목반을 구성해 백운산 일대 210ha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농한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도평리 주민들은 2001년부터 백운산 고로쇠 작목반을 구성해 매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45일 동안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농협판매장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백운산 고로쇠 작목반 10여명은 수액을 채취해 가구당 2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지리산 수액에 비해 늦게 채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쪽에 위치한 백운산 일대는 밤과 낮의 일교차 심해 다른 지역 수액보다 맛이 좋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고로쇠 수액은 맛이 약간 달고 시원하며 약간 향기가 있다. 빗갈은 거의 없으나 물보다 약간 진하다. 수액에는 당분, 철,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 A, B, C 등 갖가지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산도는 7점 정도의 알칼리성 음료다.

수액은 직경이 30cm가 넘치는 나무에 8mm정도 구멍을 내고 위생용 조릿대를 끼워 비닐 봉지에 연결한 후 수액을 받는다. 수액은 경직 전후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은 고로쇠 작목반을 구성해 백운산 일대 210ha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농한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고 했지만 요즘은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채취한다.

고로쇠 수액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으며 마실수록 맛이 당기는 것이 특징이다. 많이 마시는 사람은 하루 저녁에 한 말을 마시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하루 한 말씩 일주일 동안 마시면 좋다. 고로쇠 수액은 위장병, 신경통, 허약체질, 당뇨병, 피부병 등 비노기과 질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

고로쇠는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다. 통일신라시대 도선대

사가 이른 봄 백운산 깊은 곳에서 좌선하고 있다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부러진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 나왔고 그것을 도선대사가 목을 축이자 거짓말처럼 무릎이 펴졌다. 대사는 뼈에 이점순(사서교사)의 화현초를 고토쇠의 어원이라고 한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 판매 문의는 백운산 고로쇠 작목반 031-535-8350으로 하면된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심터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관심이나 기대로 효과가 높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효과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힘 때문이다.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말은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백지와 같은 천진한 심성을 그대로 보고 대한다는 것이다.

미리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다는 단정을 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그 자체로 보고 대하는 것이다.

최근의 정치판을 보면 도무지 인격적인 냄새가 나질 않는다. 정치판에서 인격을 찾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는 몰라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더 튀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보려는 심사인지는 몰라도 그런 작태를 보는 국민들은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굳이 '저업지득' 또는 '차기' 한 말로 비판을 받는다'는 성인들이 가르침은 받아도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경기도 포천 교육청 인사

■초등교장 → 장학사전직 ▶학무과장직무대리 임용담 ▶교감 ▶교장승진 ▶선단 이삼식 ▶영중 유영기 ▶태봉 엄은일 ▶포천 인종수 ▶장학사임용 ▶포천교육청 박광범 ▶교감전보 ▶외북 정구창 ▶교사 → 교장승진 ▶유안 교영준 ▶정성 김현철 ▶지현 손현섭 ▶금주 양행자 ▶추산 양희권 ▶화현 유희순 ▶이동 이정순 ▶관인 한명수 ▶이곡 최호경 ▶태봉 허일남

■교감 관내전보 ▶가산 김철수 ▶영북 김신규 ▶일동 박정수 ▶중동 김성준 ▶일동 박정수 ▶영중 김우석 ▶교장전보 ▶포천중 오영근 ▶교장승진 ▶내촌중 양윤찬 ▶송우중 박정수 ▶관인 교용찬 ▶영북중 신상호 ▶교장승진 ▶일동 김성규 ▶송우중 이광진 ▶포천 여중 윤미영 ▶관인 교용찬 ▶영북중 이광준 ▶교장전보 ▶포천 중 배정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포천 교육청 박선출 ▶초등학교 ▶교사 ▶가산초등학교 ▶구분화 ▶김영희 ▶조미정 ▶관인초등학교 ▶이정현 ▶황문영 ▶최미지(보건교사) ▶김미란(유치원교사) ▶금주초등학교 ▶홍순균 ▶박진영 ▶채삼미 ▶내촌초등학교 ▶김민정 ▶양순자 ▶노승수 ▶최세영 ▶유영주 ▶김지희 ▶박용준 ▶신정해(보건교사) ▶정진경(유치원교사) ▶도평초등학교 ▶장창호 ▶보장초등학교 ▶최정우 ▶김신후 ▶최충만 ▶평명호 ▶전현주(유치원교사) ▶정진경(유치원교사) ▶선단초등학교 ▶양선화 ▶임대기 ▶오선화 ▶김연순 ▶김자경 ▶김은혜 ▶김지현 ▶문지혜 ▶안성신 ▶오지숙 ▶유향미 ▶이금호 ▶송우초등학교 ▶오순옥 ▶노승희 ▶오은나 ▶공준배 ▶임미현 ▶김유민 ▶김신숙 ▶류가예 ▶문지영 ▶안성신(유치원교사) ▶위애정(유치원교사) ▶신봉초등학교 ▶최명숙 ▶신봉초등학교 ▶박재현 ▶김미숙 ▶이수진 ▶장지웅 ▶이혜영 ▶전미선 ▶경경화 ▶이형심(보건교사) ▶박선미(유치원교사) ▶장은경(특수교사) ▶영북초등학교 ▶김은성 ▶김두환 ▶리혜진 ▶김은영 ▶최하영 ▶김은아 ▶고영대 ▶장수희(보건교사) ▶김성욱(유치원교사) ▶민정(유치원교사) ▶영중초등학교 ▶박정희 ▶박보미 ▶채지윤 ▶영평초등학교 ▶김규정 ▶김신화 ▶김수진 ▶문담초등학교 ▶강성영 ▶유안초등학교 ▶김양원 ▶강혜신 ▶권미경 ▶김현선(유치원교사) ▶이곡초등학교 ▶최정숙 ▶전영모 ▶신혜민(유치원교사) ▶이동초등학교 ▶양진영 ▶박재규 ▶마은경 ▶이혜원(특수교사) ▶일동초등학교 ▶안인숙 ▶신민자 ▶송세정 ▶성미정 ▶윤정란 ▶이삼숙 ▶이수정 ▶송혜미(유치원교사) ▶김혜영(유치원교사) ▶김지연(특수교사) ▶왕방초등학교 ▶박명희 ▶김옥현 ▶김나경 ▶강아람 ▶이소연 ▶박경희 ▶지옥분 ▶진선미 ▶김명호(유치원교사) ▶정윤교(유치원교사) ▶박남순(보건교사) ▶공석초등학교 ▶김지연(특수교사) ▶태봉초등학교 ▶조윤중 ▶정도연 ▶최한성 ▶이승희 ▶원애련 ▶조영미 ▶김윤경 ▶정민영 ▶김하남 ▶신소영

都·農 여성단체 전통문화교류의場

영북농협, 서울북부농협과 전통 장(醬) 담그기



영북농협 고흥주부모임 등 40여명의 부녀회원과 서울북부농협 여성대학 2기~8기 회장 등 40여명은 지난 27일 영북면 대회관에서 전통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7일 영북농협 고흥주부모임·봉가주부모임·대회산 부녀회원 40여명은 영북면 대회관에서 서울북부농협 여성대학 2기~8기 회장과 고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4개구 12개 부녀회장 40여명과 함께 전통 된장 담그기(60말)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영북농협 각읍품물놀이팀의 설장구, 웃다리품물놀이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서울북부농협 여성단체회원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상견례에 이어 전통 장 담그기 시연과 손두부 및 보리밥으로 점심 식사, 농가 일손돕기행사(시금치 뜬 임·봉가주부모임·대회산 부녀회원 40여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 담그기 행사는 농촌과 도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여성 개인가정 식탁으로 우리 농산물과 정직한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려 영북지역 농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과 함께 영북농협 미소살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한편, 농촌지역여성에게는 농한기 일감을 찾고 교류행사를 통한 기타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 부가적인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사과 따기'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1회 2월 27일, 2회 3월 3일-장담그기(물량-60말) ▶4월 12일(주간) 장 가르기 및 채취나들이(달래개기), 명성산 등반 ▶4월~10월 속담(농가관리) ▶10월 속성된장·간장 가져가기, 사과따기, 농산물 직거래(건고추, 기타농산물), 명성산 등반

영북농협 이상용 조합장은 "한 말에 2만원 하는 품을 메주로 만들어 6만원에 팔 수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장 담그기, 속성 등 관리비용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3월 중 북부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북부농협 관계자는 "도시농협에서 농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담그기 등 교류전통문화행사를 통해 깊은 장맛을 체험할 수 있으며 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농촌간 현지교류를 통해 농촌과 농심을 이해하고자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북농협 미소살 20kg 1천100포를 구입하여 북부농협 조합원에게 공급한 바 있고 이후 매월 300포 이상의 미소살을 북부농협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나의힘

동물 기르기



윤이용  
본지 운영위원장

“일상의 스트레스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성장을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15년 전부터 진득하게 감자지를 구입해 꾸준히 기르다가 포천시 내촌면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닭, 오리, 새 등 조류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본지 윤이용(54·사진) 운영위원장인 사육하고 있는 새는 원앙새, 자고새, 닭, 오리, 칠면조

동물 성장을 보며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하다. 마음 속에 답답한 것을 푸는 계기가 되는 동물사육에는 남녀노소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설비만도 500여만원이 소요되며 원앙새의 경우는 사육하기도 받아야 기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도 되고 희귀한 동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낱다르다. 닭도 일반 토종닭이 아니다.

일명 '날아 다니는 닭'을 기르고 있다. 윤 위원장은 희귀종이 눈에 띄지만 하면 구입하여 정성을 다해 기르고 있다.

“동물을 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해주기도 한다”는 윤 위원장은 동물이 성장하면서 억눌렸던 마음도 풀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동물 기르기를 주변에 권하기도 한다.

김명경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山林人 김홍수氏 선출

22일 산림조합 대의원선거 27표 당선

지난 22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영북면 농촌지도소에서 치러진 포천시 산림조합 대의원선거에서 산림리 김홍수씨가 선출됐다.

이날 입후보한 조합원은 아미리 김성음, 산정리 김홍수, 윤천리 백성길 씨 등 3명이었으나 윤천리 백성길 후보가 사퇴해 아미리 김성음 씨와 산정리 김홍수씨가 조합원 32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27표를 획득한 김홍수씨가 대의원에 당선됐다.

김홍수(56년생)씨는 산지경영 임업후계자로서 산림조합원에 종사

한지 10년이 되었으며 지난 2004년도 대의원에 당선된데 이어 올해 다시 연임하는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북면 산림조합원을 대표하여 일하게 되었다.

지난 해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출발방법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대의원 정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영북면 관내 거주 조합원 105명을 대표할 대의원이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18일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관계자, 면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활기찬 노후生活 되세요”

가산면 가산리 경로당 준공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18일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관계자, 면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

장은 “새롭게 마련된 경로당을 유용하게 활용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준공식을 가진 가산리 경로당은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469-10번지에 대지면적 85평, 건축면적 34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8천5백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가산리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돼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